

서울시립 어린이병원 견학기

A Visit to Seoul Metropolitan Children's Hospital

성기창
Seong, Ki-Chang

2008년 11월 1일(토) 학회의 정기행사로써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을 견학하였다. 이번 방문에는 약 30명이 참가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설계 주관사인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준비한 건립과정 및 시설현황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시작으로 견학회는 진행되었다.

■ 집과 같은 병원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은 2007년 대지면적 46,421㎡, 건축면적 3,442.45㎡, 연면적 14,483.59㎡의 지하1층, 지상 6층의 규모에 295병상으로 신축되었다. 이는 1948년 시립보건병원으로 시작된 서울아동병원이 어린이 치료 전문병원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복합장애어린이 250여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보호자가 없는 경우이며, 보호자가 있어도 저소득층으로 실제 양육이 불가능한 상태로 병원 측의 보호와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즉 서울시립어린이병원의 주요한 기본 기능은 중증장애어린이의 보호와 치료기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설계의 기본개념으로 주거형 만성병동(동관)과 치료형 급성병동(서관)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Hospital Street로 유기적으로 연계한 것은 설계대상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로 여겨진다. 이러한 2가지 타입의 병동은 '집'으로서의 이미지와 '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받코니, 벽돌마감, 박공지붕 그리고 연속된 수평창과 흰색의 수평띠로 표현되며, 이는 적절한 매스의 분절과 수평띠의 상호관입으로 대립성과 함께 통일성을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있다.

* 정희원, 공학박사, 한국재활복지대학 부교수



이러한 자연스러움은 헌릉로의 주 진입로 측에서 볼 때 장애인 시설 또는 병원이라는 일반적 이미지를 주지 않는다. 건물의 외부 느낌은 정리된 복잡성이 주는 따뜻함이다. 특히, 붉은 벽돌과 박공지붕의 마무리는 지역사회 속에서 고립된 장애인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공동체로서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듯하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이라는 변화된 복지개념에 따라 사회로부터 격리된 병원이 아닌 사회에 개방된 열린 병원을 추구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아울러 그 내부 기능에 있어서도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은 서울시 전체 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재활치료센터로의 발전을 전제로 1, 2층은 보호자가 함께 하는 외래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 도시와 자연으로 향한 열린 병원

대지는 도시 가로체계의 수평적인 도시축과 직교의 진입축을 가진다. 또한 대지의 서측에 6m 그리고 동측에 1m 레벨차가 있으며, 배면에는 인릉산이 위치하여 10-20m의 높이차와 급경사를 형성한다. 이는 도시 속에 자연이, 자연 속에 도시가 인접하는 절묘한 입지적 특성을 나타낸다. 하지만 헌릉로에서의 차량소음은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은 풀어야만 할 문제를 의미하며, 어린이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과연 어떻게 해결하였을지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였다.

헌릉로의 대로변에 인접한 전체적으로 질서정연한 건물 매스(Mass)는 앞에서 언급한 따뜻한 지역친화적 이미지와 함께 일견 지나친 보호중심의 내부 지향적인



배타적 공간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즉, 도로와 대지 내부공간을 완전히 분리시켜 대지내부를 도시로부터 강박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주출입로를 지나 동관 건물에 점점 가까이 접근할 때, 시각적 관통과 함께 유리외벽과 복도회랑의 수평면 너머 열려진 내부중정을 발견하게 된다.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의 개방성은 신선함 그 자체이다.

이는 더욱이 대로변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Buffer Zone으로서, 도로측에 Core, 부속실, 병실순의 3단계 공간구성과 함께 소음이라는 문제를 물리적 방식이 아니라 건축적 공간구성으로 해결한 좋은 선례를 보여준다. 도시로의 공간적 열림과 차단이 동시에 보여주는 중정은 다소 길어진 동선의 아쉬운 점은 있지만 Void한 공간의 복잡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건물 후면에 나타나는 인릉산을 향한 삼각형의 병실 발코니와 서관의 Over Bridge에 의한 외부공간과의 자연스런 적극적 연계는 자연으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중증장애어린이에 대한 건축적 감정이입으로 태양빛의 유입과 함께 자연에 대한 조망과 다양한 형태의 휴게 및 오감체험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다른 어느 병원보다도 이곳은 어린 생명들이 중증장애로 생사의 기로에 서서 고통 받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숙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미게 한다.

